

# 라오코리안대학교 개교를 바라보며

## 1.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가?

라오스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서 인구는 약 700만 정도입니다. 근대사는 매우 복잡한데, 프랑스가 점령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 일본이 점령하기도 하였고, 또 베트남전쟁 때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5년에 사회주의인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정식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평화로우며, 개방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장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관광명소도 별로 없는 GDP 세계 122위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매우 국민들은 매우 온순하고, 친절하며, 급하지 않고, 화도 안내며, 싸움도 없습니다.

## 2. 선한 가르침으로 운영하는 대학?

언급한대로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며, 불교국가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국립대는 수도를 포함 도시 몇 군데일 뿐이고, 교수요원도 석사 이하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연구는 물론 어렵습

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배우고 싶어 하나 갈 곳이 적어 이곳저곳 방황합니다. 선한 가르침이 어려워 소망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도 기쁜 소식을 주는 방법은 물론 우리 같이 번영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장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선한 가르침으로 운영하는 정규대학을 설립하여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젊은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 움직이는 좋은 대학은 외적으로는 어려워도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대학을 통해 묶였던 것들이 점점 풀려지고 기쁜 소식이 서서히 알려질 것입니다.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유한 인재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그것들은 전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지닌 대학이 2017년 6월에 시작합니다. 바로 라오코리안대학교(Lao-Korean College, LKC)입니다. 10여년 전 일반적 입장에서 세워진 이 대학은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라오스에 대학설립을 준비한 라오스대학설립위원회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철학과 이념, 교수진, 시스템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새로운 틀 안에서 새롭게 구축하여 금년 6월에 다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 3. LKC의 교육은?

LKC에는 컴퓨터정보공학과, 영어학과, 한국어학과, 재무회계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등 5개학과가 있으며, 전기공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2016년 라오스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라오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학중심으로 구조를 조정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수요원은 우리나라나 서구에서 파견된 기쁜 소식을 지닌 헌신된 전문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기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밀착된 삶의 나눔을 위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과 국제화를 위해 대부분 영어로 강의할 예정이며, 한국유학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심어주고, 귀국 후 교수요원이나 중요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으로서 라오스 국가가 꼭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최상의 대학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과 세계관을 접하는 그런 대학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명감과 세계관을 지닌 교수요원을 초청합니다. 이런 대학이야말로 라오스에 소망을 심는 통로라고 믿고 재정적으로, 혹은 교수요원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LKC는 “그 분이 운영하시며, 역사하시는 대학”이 되고, “진리와 섬김”을 설립정신으로 라오스 및 동남아 젊은이들이 좋은 가르침을 품는 자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 4. LKC의 지원은?

LKC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를 2015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창립목적은 본 LKC의 설립 및 운영지원은 물론, 라오스 등 동남아 오지의 열악한 초중고 교육기관의 건축, 증축, 보수 및 학생

보건 의약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통하여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장차 규모가 커지면 당초의 창립 목적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 5. 결론

현재는 여러 면에서 소망이 적어 보이는 국가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 민족은 서서히 변영의 나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이 비전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인적, 물질적인 면에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획하셨기에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열악하고 가난한 그 민족을 다만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싶으신 분이시면 됩니다. 손을 모으면서 함께 사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라오스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힘겨움에서 소망의 열매를 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 거룩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운영할 라오스 리안대학교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라오스를 함께 품으실 교수요원(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상주 가능한 분, 학과 : 영어, 한국어, 컴퓨터IT, 재무회계, 뷰티, 전기공학)을 초빙합니다. LKC 교수요원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010-3403-0748((사)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 사무국장 국제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글 | 이종범

현재 라오스국립대 초빙교수 및 (사)동남아교육문화협력회 이사장, 전 원광대 교수, (사)DEW 이사, 실행위원장, 통합연구학회 회장 역임